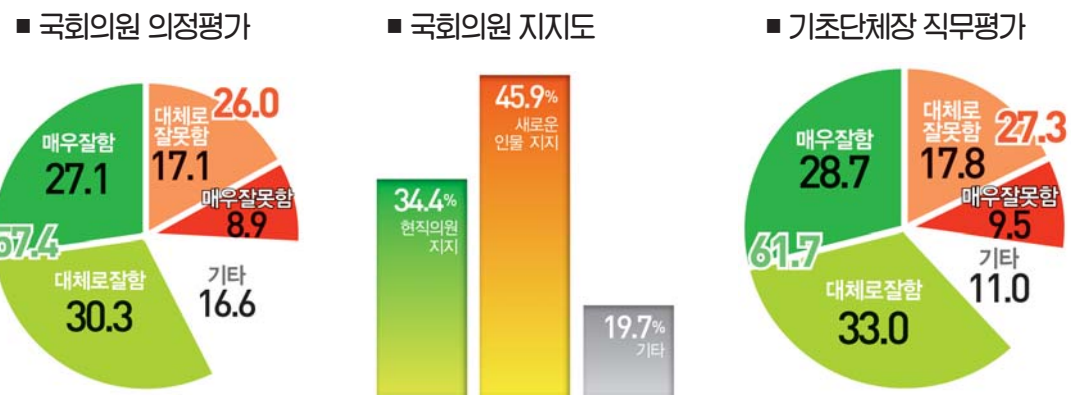


광주·전남 국회의원·단체장 평가 1만4800명 여론조사 ▶ 3~7면



46% “총선 새인물 뽑겠다” 단체장 평가 “대체로 만족”

대선후보 지지 손학규-문재인 각축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유권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대폭적인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 대선 후보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일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뷰에 의뢰, 광주·전남지역 19세 이상 남녀 1만4800명(광주 4800명, 전남 1만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설문(RDD방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4.4%에 그친 반면,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5.9%를 나타냈다.

이는 현재의 지역 정치권의 비전과 역량으로는 미래를 걸임할 수 없으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총선 지지율이 새 인물 지지율보다 높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박지원, 이낙연, 이윤석 의원 등 단 3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과감한 개혁 공천에 나서지 않는다면 강력한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평균 57.4%를 기록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6.4%,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5.9%를 기록, 초박빙 경합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광주지역 지지율 조사에서 30.2%를 기록, 24.5%에 그친 손학규 대표를 따돌리는 등 상승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4%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11.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강원대 광주시장에 대한 직무평가에서는 59.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서는 6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직무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평균 61.7%로 집계돼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는 기초단체장들의 임기가 이제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64.7%로 압도적이었으며 한나라당이 7.2%, 민주노동당이 5.8%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광주가 ±1.4%, 전남이 ±0.98%포인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교체 요구가 높은 데다 야권통합 바람 등으로 내년 총선에서 상당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물갈이 쓰나미’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뒤 “대선 주자 지지율 추이는 손 대표가 상승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이사장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사결과 통계표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고졸 새내기들의 힘찬 출발

지역특성화고 출신으로 광주은행에 신규 채용돼 첫 추석을 맞는 인턴 직원들이 8일 광주시 동구 본점 앞에서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30여명의 고졸 인턴 직원을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을 정규 직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천만명 대이동 오늘 오후부터 귀성 시작

민족 대명절인 추석(12일) 연휴를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국토해양부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전국적으로 약 293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석을 나흘 앞둔 8일 광주·전남 일부 국도 주변과 국립 5·18 민주묘지, 광주시립묘지 인근 도로에는 교통혼잡을 피해 일찍 성묘를 마치려는 성묘객들이 몰고 온 차량으로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광주 동구 대인시장과 서구 양동시장, 북구 말바우 시장 등 주요 재래시장과 백화점은 세수용품과 선물꾸러미를 사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였다. 또 서구 광천동 터미널과 광주역에는 예약 취소된 버스표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찾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8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부터 귀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하루에만 약 50만9000대의 차량이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동광주·동광산·전주·순천·목포 등 호남지역 주요 영업소 귀성·귀경길 하루 평균 예상 교통량은 59만대(귀성 29만대·귀경 29만9000대)다. 이는 지난해 추석 귀성(28만대)·귀경길(28만7000대) 교통량보다 4.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광주 귀성은 최대 6시간20분, 광주→서울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찾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8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부터 귀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하루에만 약 50만9000대의 차량이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동광주·동광산·전주·순천·목포 등 호남지역 주요 영업소 귀성·귀경길 하루 평균 예상 교통량은 59만대(귀성 29만대·귀경 29만9000대)다. 이는 지난해 추석 귀성(28만대)·귀경길(28만7000대) 교통량보다 4.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광주 귀성은 최대 6시간20분, 광주→서울

귀성은 6시간3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는 승용차보다 1~2시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추석 당일 귀성차량과 귀경차량이 일시에 집중돼 극심한 혼

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귀성차량은 9일부터 추석 하루 전날인 11일 오전에 집중되고, 귀경차량은 추석인 12일 오후와 13일에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추석 연휴 광주·전남 날씨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비 20/26	비 22/26	비 22/27	구름 많음 22/28	구름 많음 22/28

10·11·12·13일자 신문 쉽니다.

추석 특집 지면 안내

연휴 생활정보	2면	온 가족 문화나들이	15면
한가위 에세이	12면	TV 프로그램	18·19·21면
F1 보고 전남관광 하고	14면	한가위 극장가	23면
경제특집	13면	스포츠	24·25면

무요로우
한가위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웨딩·객실 대항술인 행사

GRAND OPEN
1주년 기념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할인!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호텔예술의전당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혜택!!

대형예식장 뷔페식비 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합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참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예약문의 362-0011, 600-9999